



제 46권 25호

2021년 6월 20일

7장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1.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는 매우 현격해서, 이성적인 피조물들이 자기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분에게 축복과 보상으로서 어떤 성과도 거둘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어느 정도 자발적인 비하에 의해서, 기꺼이 그것을 언약의 방식으로 나타내셨다....(중략)

5. 이 언약은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에 다르게 시행되었다. 율법 아래에서는 유대 민족에게 맡겨진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어린양, 그리고 그밖의 양식과 의식들에 의해 시행되었는데, 모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들이었다. 그 시대에는,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기에 충분하고 효과적이었으며, 그 메시아에 의해 그들은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을 구약이라고 한다.

6. 그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출현하신 복음 아래서, 이 언약이 베풀어지는 의식은 말씀의 설교, 성례(세례와 주의 만찬)의 시행이다. 비록 수적으로 더 적고, 더 단순하게 시행되며, 외형적인 영광이 덜하기는 하지만, 그것들 안에서 더 충만하고 분명하고 영적으로 효력있게 제시되며, 모든 나라,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제시되는데, 이것을 신약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개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며, 다양한 경륜 아래 동일한 것이다. <웨스트 민스터 신앙고백>

오타와한인교회

384 Arlington Ave, Ottawa, ON, K1R 6Z5
(613) 236-4442
okcc.ca

주일 예배 (OKCC Live Stream)

오전 10:30	인도: 박만녕 목사
예배부름 <i>Call to Worship</i>	인도자
입 레 송 <i>Praise</i> 25장	다함께
신앙고백 <i>Apostle's Creed</i>	다함께
예배기원 <i>Invocation</i>	인도자
찬 송 <i>Hymn</i> 44장(통56)	다함께
기 도 <i>Prayer</i>	유영창 장로
봉 헌 <i>Offering</i> 212장(통347)	다함께
봉헌기도 <i>Offering Prayer</i>	인도자
광 고 <i>Announcements</i>	인도자
성경봉독 <i>Scripture Reading</i> 창17:1-7	인도자
찬 양 <i>Praise</i> 206장	다함께
설 교 <i>Sermon</i> "언약 가정의 제사장"	박만녕 목사
찬 양 <i>Praise</i> 556장	다함께
축 도 <i>Benediction</i>	인도자

* 의복을 단정하게 하시고 앉아서 예배하십시오.

(다음주일 예배기도: 김범수 장로)

수요일 예배 (OKCC Live Stream)

6월 23일, 오후 7시30분 설교: 이도윤 목사
왕하 2:5-14,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토요일 새벽기도회 (OKCC Live Stream)

6월 26일, 오전 6시 설교: 조남중 목사
마태복음 7:24-27, "어리석은 자에게도 주시는 은혜"

